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눈의 고장 삿포로에서 봄날의 스키·스노보드를 즐겨봅시다.

삿포로시 독일 국제교류원 Leonard Brinkmann

안녕하세요, 삿포로시 독일 국제교류원 Leonard 입니다.

한 해의 3분의 1이 눈으로 뒤덮여 있는 삿포로는 3월이 되어서야 봄햇살이 비치며 눈이 녹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봄 소식에 기뻐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겨울을 사랑하는 분께는 그다지 기쁜 소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싹트는 초목을 보며 상기되기 보다는 녹는 눈을 보며 ‘겨울이 또 눈 깜빡할 새에 끝나버렸네’라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삿포로에서는 추운 겨울 동안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윈터 스포츠와 온천(특히 노천온천), 겨울의 제철 해산물(예를 들자면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삿포로 눈축제’ 등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겨울 이벤트를 다음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섭섭하기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3월은 너무 이른 계절입니다.

기쁘게도 삿포로에서는 5월 상순까지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자주 다니는 스키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삿포로 시내 중심부에서 차로 약 40분, 데이네 역에서 약 16분이면 도착하는 ‘삿포로 데이네 스키장’입니다.



사진 : 삿포로 데이네 스키장(가모리관광 주식회사 제공)

데이네 스키장에는 초급, 중급, 상급의 각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심자가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연습할 수 있는 초급 코스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데이네산 산정

(1,023m)에서 시작되는 ‘내추럴 코스’가 재밌습니다. 자녀와 함께 방문하신 분께서도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경사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약 4,000m 길이의 장거리 삼림 코스입니다. 스키를 타고 활강하며 다양한 시점에서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의 경치를 즐길 수 있어 감탄이 절로 나는 코스입니다.

초급을 졸업했거나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분께는 ‘시티 뷰 크루즈’를 꼭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삿포로의 도시경관을 내려다 보며 활강하는 이 코스는 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데이네만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키 실력에 자신이 있는 분께서는 아마 급경사 중에서도 급경사 코스를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하이랜드 존’에는 홋카이도에서도 흔치 않은 숲 속을 누비는 와일드한 ‘기타카베’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자연설 ‘기타카베’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자연 둔덕과 급사면을 꼭 한 번 경험해 보십시오. 둔덕이 많은 코스 보다 평평한 급경사 코스를 좋아하신다면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당시에 사용된 ‘여자 대회전’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위해 경쟁하던 장면을 상상하며 스키를 탄다면 감동과 달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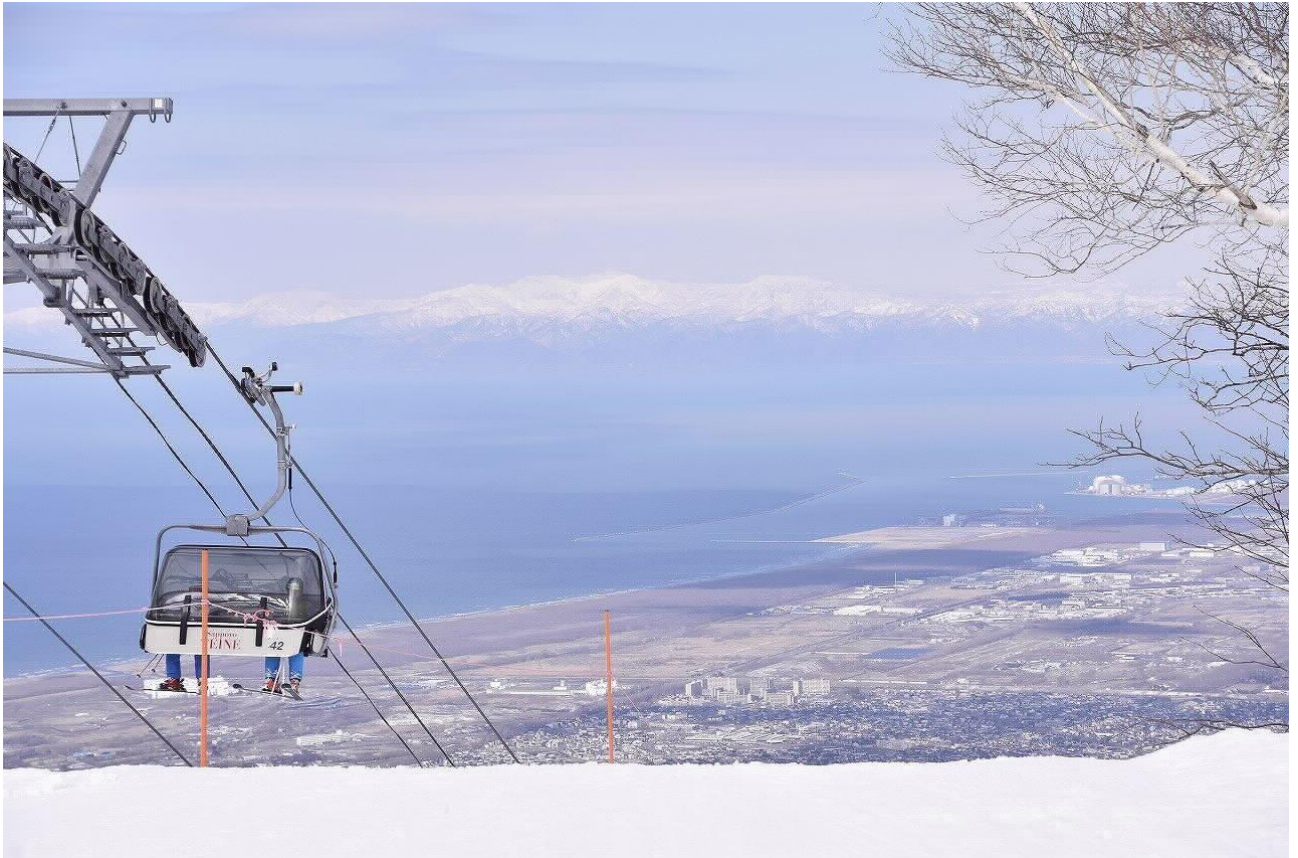


사진 : 삿포로 데이네 스키장(가모리관광 주식회사 제공)

일조시간이 늘어난 따뜻한 봄철에 제가 소개해 드린 코스를 스키와 스노보드로 활강해 본다면 겨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키장 휴업 시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얼른 삿포로의 스키장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삿포로 데이네 스키장 공식 홈페이지(일본어/영어)>

<https://sapporo-teine.com/snow/>